

류영수 발행인 논평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창

제8대 거창군의회 당선자 통영 호화 연수



류영수 채널경남 발행인

거창군의회는 2018년 6월 25일 오전 10시,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 1박2일 통영으로 제8대 의원 당선자 사전 연수를 다녀왔다. 채널경남은 거창군의회 제8대 의원 당선자 사전 연수를 특별취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근군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너무 많은 경비를 지출하며 호화연수를 했다는 것이다.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 고성휴게소를 거쳐 경남 통영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원리조트에 도착했다. 취재진은 먼저 의원들의 숙소를 점검했는데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었다. 필자가 알기로는 거창군의회 역대 의원들이 연수를 가면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막론하고 방 배정은 2인 1실이었다. 그런데 이번 연수 중 의원들의 방 배정을 보니 1인 1실 특실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거창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군이고 거창군의 인구 감소로 갈수록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살아 갈수가 없는 어려운 거창군인데 6.13선거가 끝난지 약2주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당선증을 받아 당선증을 잉크물도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군비를 합부로 지출하여도 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연수를 가면 2인 1실로 방을 배정 받아 의원간에 방을 같이 쓰면서 서로 돈독하게 잘 지내는 것도 연수의 목적

중 하나일 것인데 왜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취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갔다. 앞으로 이런 군의원들이 거창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인근 함양군이나 산청군을 살펴봐도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함양군은 연수를 2018년 6월20일 경주 최고의 호텔인 현대호텔에서 재운 의정 이란 지방의회 의정연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강을 했다. 그런데 경비로 4,270,000원을 지출했다. 인근 함천군의회는 부산시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특강을 하였고 군의원 11명, 직원6명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차량은 의회차량을 이용하는 등 총 경비는 2,200,000원을 지출했다. 산청군의회는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인 의회 소회의실에서 6월18일 오후 2시부터 교육을 직접 하였다고 한다. 일체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다. 그런데 거창군의회는 경우 하루도 아니고 1박 2일로 통영시까지 관광버스

전세를 내어 대기시켜 놓고 의원11명과 직원9명이 가서 교육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지난날 연수를 가서 숙박을 해도 호텔방을 사용해도 2인 1실로 썼었다. 그런데 거창군의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님들은 호텔방을 1인 1실로 사용 하였다. 인근 군의회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정말 격정이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무슨 거창군의 군정감시가 제대로 되겠는가? 년말이면 예산심사가 있다. 집행부와 서로 봐 주고 하는 것 아닌가 격정이다. 산청군은 당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오후에 교육을 마쳤고 함양과 함천은 당일 부산, 경주로 가서 연수를 끝내고 오니 경비가 절감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 거창군은 통영시 약1시간 거리를 1박2일로 잡아 경비를 10,000,000원 이상 지출하며 호화 연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창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길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는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동원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8대 의원당선자 사전 연수를 실시했다.

“피와 땀과 눈물로 하동 100년 미래 토대 완성할 것”

윤상기 군수, 민선7기 첫 정례조회 통해 4년간의 군정 운영 각오 다져



윤상기 군수가 지난 4일 민선7기 첫 정례조회에서 향후 4년간의 군정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사에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과 같은 국란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대비하고자 피와 땀과 눈물로 <징비록>을 기록했듯이 피와 땀과 눈물로 하동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 집중호우와 제7회 태풍 ‘쁘라삐룬’의 여파로 취임식을 취소한 윤상기 군수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7기 첫 정례조회에서 향후 4년간의 군정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이

렇게 밝혔다. 윤상기 군수는 취임인사말을 통해 “50만 내의 군민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하동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이 자리에 다시 섰다”며 “군민이 부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정면 돌파 하겠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돌이켜 보면 지난 4년간 많은 성과도 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특히 내의 군민의 염원이자 하동 100년 먹거리인 갈

사 산업단지의 조기 정상화와 투자유치에 심혈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1세기 글로벌 산업은 성장하는 관광산업인 만큼 익사이팅 산업과 웰니스·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600만 관광시대를 넘어 800만 관광시대를 이룩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금오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경전선 폐선구간의 레일 MTB, 형제봉 및 구재봉 활공장의 패러글라이딩 유료 탑승, 섬진강 재첩의 세계중

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등 세계인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최근 하동 10경의 하나인 불일폭포 인근에서 발견된 고온 최치원 선생의 서각 ‘완폭대(雁瀑臺)’의 문화재 지정 추진을 통해 글로벌 관광 자원화하고, 제2의 하동송림인 대규모 숲을 조성해 힐링·휴양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수출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선7기 4년간 수출 1억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누구나 살맛나고 부자되는 농업·농촌을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군수는 이어 “100년 미래의 주역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감동복지 실현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군민 모두가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군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의 군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650여 공직자의 열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650여 공무원 모두가 ‘군수’라는 마음가짐으로 100년 미래 토대 완수를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고온 최치원 선생이 쓴 ‘완폭대(雁瀑臺)’ 서각을 발견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김봉상 전 하동분소장과 조병근 주임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섬진강 이웃사촌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성료

광양·하동 생활체육인 300명 참가



하동군은 제21회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축제를 열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이웃사촌 광양·하동지역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음축제가 광양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하동군은 지난 주말 광양실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제21회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축제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축제는 광양·하동 생활체육 동호인의 교류 확대를 통해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동서·계층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매년 교차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광양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양시 종목단체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양시·군 생활체육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 벨

리댄스팀의 식전 공연에 이어 개회선언, 선수선서, 동호인 상호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11시 30분 생활체조를 시작으로 축구, 남녀배구,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족구 등 10개 종목이 종목별 경기규정에 따라 실내체육관과 보조구장 등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섬진강을 사이에 둔 이웃사촌 광양·하동이 우정의 끈을 이어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며 “이번 한마음 축제를 통해 양시·군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개동 ‘꽃같이 아름다운 100세 잔치’ 지역 어르신 500명 모시고 경로잔치 벌여



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꽃같이 아름다운 100세 잔치’를 열었다.

하동군 화개면은 지난 주말 오전 11시 화개중학교 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꽃같이 아름다운 100세 잔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화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권두연)가 마련한 100세 잔치는 식전공연에 이어 1부 개회식, 2부 문화공연, 3부 축하공연을 겸한 음식대접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신홍마을 ‘시인의 정원’ 펜션대표가 하모니카와 기타 연주로 분위기를 돋운 뒤 화개초등학교와 왕성분교 학생들이 기타·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신나는 동요를

불러 어르신들을 흐뭇하게 했다.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한 떡 커팅으로 개회식을 가진 다음 고려시대 노인사설의(老人賜設儀) 시연과 함께 김필곤씨의 화개채다가(花開採茶歌) 시낭송, 오계산씨의 화개노래 ‘화개아리랑’ 등의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건강식으로 삼계탕을 대접하면서 축하공연으로 평생학습 참여어르신 13명의 건강 체조와 가아금 및 민요 연주, 지역가수 김수련·오계산의 가요공연에 이어 화개면 풍물패 ‘피가람’의 흥겨운 풍물놀이로 잔치의 막을 내렸다.

하동군-경찰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

하동군, 읍내마을 경사지 노후주거 재생사업 상호협력 협약



하동군은 하동경찰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동군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하동을 읍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하동경찰서

와 손을 잡았다. 하동군은 지난 4일 하동경찰서 서장 집무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상

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화전민 집단이 주지인 읍내마을 경사지 일원 노후주거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과 소규모 주택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 측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협력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 추진에 있어 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사업 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범죄예방 건설 및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경찰서와 협력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범죄 예방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읍내리 튜터(Tutor)마루’가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국비·지방비 등 4억원이 투입되는 튜터 마루는 하동을 읍내리에 튜터센터를 설립해 튜터 홍보, 지역 청년 멘토멘티 프로그램, 읍내리 육아나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